

2014. 8. 18. (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창조경제팀 박준국 팀장 (02-731-2410), 박시정 사무관 (2412)

판교 테크노밸리 및 송도 국제도시 현장방문 및 간담회

- 창업생태계 현황 및 발전방안 논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현정택 부의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은 '14.8.14(목) 판교 테크노밸리와 송도 국제도시를 방문하여 해당지역 지자체, 전문가, 기업인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새 정부 출범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13.5.15)', '창조경제실현계획('13.6.4)',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2.25)',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14.7.24)' 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통해 중점 추진되어 온 창업생태계 조성 정책들의 현장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추진되었다.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기업과의 간담회에서는 판교에 위치한 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고객 개발, 현지기업과의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고 판교의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이 단기간, 소규모 인력도 쉽게 입주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단기입주공간, 중급 비즈니스 호텔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글로벌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송도 국제도시에서는 냉장·냉동 항공물류시설 접근과 제품 수출, 외국기업 거주 등이 용이한 송도 입지의 장점을 살려 글로벌 바이오 기업 유치하고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송도 바이오 프론트 입주기업인 한 참석자는 "우리나라는 바이오분야에서 고위험 투자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기업이 부족하여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중장기·단계적 육성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싱가포르와 같이 글로벌 기업이 낮은 초기비용으로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인프라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판교, 송도와 같은 도시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벤처·중소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집적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위원들은 오늘 건의된 내용과 정부의 창업 생태계 관련 정책 중 보완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